

## 유아교육에서 ‘돌봄’과 ‘살림’에 대한 논의\*

김은주(金銀柱)\*\* · 이상수(李相秀)\*\*\*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돌보고 살리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Noddings 등의 돌봄의 윤리학과 함석헌, 장일순, 김지하 등의 생명문화운동의 바탕인 살림의 담론에 기초해서 유아교육을 새롭게 조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돌봄 교육은 전념·공감·수용을 내포하며 관계성, 맥락성 및 반응성, 윤리성 및 책임성을 특성으로 하며 자신 속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느끼고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살림 교육은 생명·모심기름이라는 용어와 함께 주로 사용되며 관계성·순환성·다양성·영성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모시고 기르는 마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명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돌봄과 살림의 특성을 유아교육의 기본방향으로서 적용해보면, 유아교육은 생명교육·삶교육·관계교육·공동체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본 바에 따르면, 자연성·지역성·실천성을 교육의 내용으로, 상호성·공공성을 교육의 방법으로, 정성을 교사의 역할로 상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에서 돌봄 교육과 살림 교육의 의미와 적용가능성을 고찰해봄으로써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주요어 : 유아교육, 돌봄, 살림, 돌봄 교육, 살림 교육

\* 이 논문은 2005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박사후연수과정생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글

오늘날 사회는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등 자연 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노인 인구의 증가, 도시 집중화 등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게 하여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점점 더 수단화·도구화·고립화·원자화되어 가고 있고, 이 속에서 소외, 무관심, 자살, 범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는 현재 교육계에 놓여진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시환경의 악화, 놀이공간의 부족, 열악한 유아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 한 예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의 개발은 소아비만, 소아당뇨,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각종 신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고(김애자·김정혜, 2003), 자연의 숨결과 멀어진 채 시멘트 건물에서의 장시간의 보육은 호흡기나 기관지 계통의 질병을 낳고 있다(고제순,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조기특기교육과 조기 외국어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한 반성 없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빨리 보다 많이 가르치는 일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 유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의 행복한 삶에 있다고 본다면, 현재 아이들의 삶이 행복한가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잣대로 ‘돌봄’과 ‘살림’의 담론을 가지고 접근해보려고 한다. ‘돌봄’과 ‘살림’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관심이 증대되면서 조기교육, 특기교육 등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에 따라 새로운 교육 담론인 ‘돌봄’과 ‘살림’의 가치로써 가르치는 유아교육이 아닌 돌보고 살리는 유아교육의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Noddings 등의 돌봄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돌봄 교육의 출현과 돌봄 교육의 개념적 요소, 주요 특성 등을 살펴보고, 둘째로 함석헌, 장일순, 김지하 등의 생명문화운동과 살림의 담론에 기초해서 살림 교육의 출현과 개념적 요소, 주요 특성 등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에서의 기본방향으로 돌봄과 살림의 특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방법적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돌봄의 교육

### 1. 돌봄 교육의 출현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근대적 학교교육은 1980년대를 전후해서 개인간의 단절과 고립, 서로에 대한 무관심, 타인에 대한 돌봄의 부족, 이기주의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 선두에 여성주의 윤리학을 주장한 일련의 학자들(Gilligan, 1994; Noddings, 1984, 1992, 1994, 1995, 2002)이 있다.

Gilligan은 기존의 정의의 윤리가 남성의 목소리에 기초해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성의 목소리인 정의의 윤리와 여성의 목소리인 돌봄의 윤리가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했다(Gilligan, 1994). 이는 남성의 도덕적 관점이 주로 공정성, 정의, 의무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연민이나 동정 등이 갖는 도덕적 가치를 간과하였음을 비판하고 관계성과 공동체성, 신뢰와 친밀감 등을 강조하는 여성적 도덕관을 강조한 것이다(이나현, 1998).

Noddings(1992)는 현대의 교육 현장이 돌봄의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학교가 공동체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교가 경쟁자와 적대자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Noddings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언어적·육체적으로 잔인하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므로 학교를 돌봄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았다(Noddings, 1992).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봄, 배려, 보살핌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발달심리학적·윤리교육적·여성주의적 접근의 연구가 박병춘·심성보·장필화·추병완·정윤경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다(김수동, 2002a).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돌봄을 실제 대상을 직접 보호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교사가 부모 대신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돌봐주는 역할, 즉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의의를 둔다. 또 다른 입장은 돌봄을 대상을 돌보는 행위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배려·희생·봉사·동정·사랑·상호의존·책임 등의 윤리적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일종의 도덕적인 덕목으로 보는 쪽이다(양옥승, 2004).

이렇듯 돌봄에 관해 이야기하는 교육학자들은 근대교육의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교육에 비판을 가하면서 인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중시한 이성중심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삶을 무의미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원리로 제시되었던 '정의의 윤리'가 오히려 인간을 원자화시키고 분절화시켜서 인간의 삶을 더욱 소외상황으

로 몰고 갔으므로, 희생·봉사·동정·사랑·상호의존·책임 등의 윤리적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돌봄의 윤리로 교육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돌봄의 개념적 요소

돌봄의 윤리학을 교육학적으로 체계화한 Noddings(1984, 1992)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돌봄에는 전념, 공감, 수용이라는 세 가지 개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Noddings는 돌보는 사람의 의식상태를 전념(engrossment; 몰입, 몰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념은 상대방에 대해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Noddings, 1992). 즉 자신의 가치나 관심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념이란 우정이나 애정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대상의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김수동, 2005). 돌본다는 것은 완고하게 규정된 원칙들에 의해서 조건화된 행동이 아니라 상황들 속에서 형성되고, 인간적 우정이나 애정을 가지고 넓고 여유 있게 조건화된 행동을 옹호한다. 우정과 애정은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소망하는 정서이다(Noddings, 1992).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삶이나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전념하게 되면, 동기가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로 옮겨가는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을 경험하게 된다. 즉 동기전환은 동기적 에너지가 타인을 향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 동기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다(박병춘, 1999).

배려에 있어 전념과 동기전환은 돌보는 시간과 강도, 양상들과도 관계가 있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념하여 귀를 기울이면 그의 이야기 속에서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내게 길을 물었을 때 멈추어 서서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상태도 전념이 되는 것이다(정윤경, 2000).

둘째, '돌본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느낀다', 즉 공감한다는(empathy)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Noddings, 1984).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다. 타인의 현실과 감정을 상대가 느끼는 것과 가깝게 이해하는 공감은 타인을 돌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감은 미리 판단하지 않으면서 아동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교사가 아동의 세계를 주의 깊게 듣고 정확히 그가 경험하는 감정을 확인시켜줄 때 아동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즉 기본적으로 공감은 아동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교사의 능력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를 꿰뚫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돌본다는 것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함께 의사소통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동은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돌보는 것을 모방하게 된다. Noddings(1984)는 공감이 고무되고 자라나서 결과적으로 성찰과 헌신으로 확립될 때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수용(receptivity, reception)은 모든 돌보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주위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상대를 수용하는 일은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Noddings, 1992). 수용의 태도가 있을 때, 거기에 감정 이상의 것이 생기고, 상대를 향한 자연스러운 동기효과(motivation shift)가 고양되는 것이다(Noddings, 1984). 수용적 양식은 반성적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수용해 왔는가를 분명히 보고, 수용해 왔던 것을 부정할 것인지, 또 그 부정에 대해 나의 감정은 편안한 지를 스스로 물어볼 필요도 있다(김수동, 2002a).

Noddings(1984)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에서 수용은 상호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교사가 아동에게 수용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할 때 아동은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검증해나갈 수 있고, 아동 역시 돌봄을 받음에 있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진정한 돌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진정한 돌봄이란, 자신 속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느끼고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요구가 요구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참된 돌봄이다. 돌보는 자는 이중적 관점을 지니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대상 또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다. 돌봄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관점을 포괄하여야 한다.

### 3. 돌봄의 주요특성

돌봄의 윤리는 특별한 공동체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이 중시된다. Noddings의 연구와 국내의 돌봄교육에 대한 문헌을 분석해보면, 돌봄 윤리에는 기본적으로 관계성, 맥락성 및 반응성, 윤리성 및 책임성과 같은 특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김수동, 2005; 심정보, 1996; Noddings, 1984).

첫째, 돌봄은 현실 속에서의 관계성(relatedness, relation)에 기초한다. Noddings(1984)에 따르면, 관계는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이때의 관계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자, 동물과 식물, 사물과 생각까지 다 돌보아야 된다는 관계의 확장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타 존재와의 관계성을 상실한다면, 인간적인(the human) 것과 존재(the being)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김수동, 2005). 따라서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관계의 상호성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상호간에 돌봄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Noddings(1984)가 말하는 돌봄의 관계란 돌보아 주는 사람(the one caring)과 돌봄을 받는 사람(the one cared) 간에 맺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돌봄 관계의 주체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이며, 돌봄을 받는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응답할 때 돌봄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관계상태 또는 관계의 질로 규정해야 한다. Noddings는 관계적인 덕을 관계 자체에 속하는 덕과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개별적인 덕 두 가지로 구분한다. 돌봄, 우정, 동료의식 등은 관계 자체의 덕이며, 정직, 성실과 같은 덕목들은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개별적인 덕에 해당된다. 그러나 Noddings의 관점에서 모든 덕은 개별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이를 박병춘(1999)은 학교교육에 연결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인격교육이나 도덕교육처럼 단순하게 개별적인 덕만을 독립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시키고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돌봄의 윤리는 관계와 상황 속의 구체적 독특성, 즉 맥락성과 반응성을 특성으로 보여준다. 도덕성이란 근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도덕적 성숙의 모습도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에 의해 묘사되었을 때 달라질 수 있거나(추병완, 1998). 때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편적 법칙이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구체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편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원칙주의적 독단과 횡포를 봐왔다(심성보, 1998). 보편적 법칙에서 도덕 행위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성에 책임을 지지만, 돌봄의 윤리에서는 우리 자신이 약한 점을 깨닫고 서로 서로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요구한다. 즉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내가 얼마나 선할 수 있는가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정윤경, 2000).

다시 말해서 돌봄의 관계에서는 돌보는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의 역할도 돌봄의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역할로 중요한 것이 반응성(response)이다(Noddings, 1992). 즉 돌봄을 받는 사람의 윤리적 자세는 자발적인 인식과 반응이며, 이 반응이 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한다. 정윤경(2000)은 Noddings 연구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사람의 행동을 고정되고 변함없는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아내어야

함을 알려준다.

아동이 돌보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아동은 돌보는 사람이 제안한 도전에 흥미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고통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연결 관계를 만들어 준다(Noddings, 1992). 예를 들어, 아이는 어머니의 정서 형태에 몰두하고 영감을 공유하면서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은 어머니로 하여금 더 쉽게 돌보도록 만든다. 아동이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무엇이 아동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돌봄은 더욱 쉬워지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아동 관계에 있어서도 아동이 교사의 돌봄을 지각하고 이에 반응한다면, 교사는 돌보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반응이 감사나 혹은 직접적인 사례의 양식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아동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노력을 보이고, 의견을 말하며, 협력을 하는 등으로 반응함으로써 교사에게 보답이 되고, 교사는 이를 파악함으로써 돌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돌보는 사람의 행동은 돌봄의 응답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돌봄은 아니다.

셋째, 돌봄의 윤리에는 윤리성과 책임성을 내포하고 있다. Noddings(1984)는 돌봄은 두 개의 감정, 곧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의 감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자연적 돌봄이란 보통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행위와 같은 비합리적이며 윤리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윤리적 돌봄은 자연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대를 돌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았던 최상의 기억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촉진되며, 우리가 돌본 경험과 돌봄을 받았던 경험을 숙고하고 돌봄의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김수동, 2005; 박병춘, 1999).

윤리적 돌봄은 규칙 혹은 원리가 아니라 Noddings가 이상적 자아라고 부르는 윤리적 자아의 발달에 의존한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살피고 싶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욕구를 극복하고 자연적 돌봄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윤리적 자아이다. 이는 현실적 자아와 돌보는 사람이자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이상적 자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나를 남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주는 관계성을 근본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형성된다(Noddings, 1984). 즉, 내가 타인을 돌봐줌으로서 나도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돌봄의 윤리성은 또한 책임을 동반한다. 다시 말해서 Noddings에게 있어 돌본다는 것은 하나의 부담을 진 정신 상태에 있는 것, 즉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걱정, 두려움 혹은 근심을 가진 상태, 즉 보호와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김수동, 2002a). 그러나 이렇게 돌보는 일이 피상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복지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며 진정한 돌봄의 의미이다.

### Ⅲ. 살림의 교육

#### 1. 살림 교육의 출현

최근의 '웰빙' 바람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재배한 유기농을 유통하는 「생활협동조합」이나 「한살림」 같은 단체에 주목하게 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모토인 '모심과 살림'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생명운동 또한 이제 환경운동만큼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매년 경기도 수원과 파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생명문화포럼'의 로고 또한 '아름다운 모심, 힘찬 살림'이었고, 「한살림」 연구소의 이름 역시 「모심과 살림 연구소」이다. 이렇듯 '살림'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에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오염, 경제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대두된 생명에 대한 담론이나 생명운동은 이러한 생명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운동의 핵심 화두가 '살림'이다. '살림'이란 '죽어가는 세상, 병들어가는 지구와 못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살림은 살림이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앞의 살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살림이다. 사전적으로는 '한 집안을 이루어가는 일, 또는 그 형편'이고 내용을 말한다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보는 일'이요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는 '의식주(衣食住)'와 '교육(教育)'을 포함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다. 뒤의 '살림'은 '살리는 일'이라는 의미의 살림이다. 즉 죽임의 반대되는 것으로 죽이지 말고 살려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장택희, 2000). 즉 '살림'이란 죽임이 아닌 살림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해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살림의 핵심은 일상생활을 살리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활의 일부이므로 교육 역시 살림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살림'의 화두를 교육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대안교육이고 생태교육이다(김은주·권미량, 2005; 김조년, 1998; 임재택, 2002; 정유성, 1997).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와 유아교육의 문제가 생명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반증한다(박석준, 2003). 이 사회에 만연한 가족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나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오는 자살이나 탈선의 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 있고, 유아들 역시 조기교육 내지 재능교육의 희생양이 되어 서너 살만 되면 각종 사설학원이나 유아용 학습지에 시달리게 되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 1990년대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부쩍 대안교육이나 생태교육이라는 이름



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안교육이나 생태교육에서 내거는 공통점은 산업사회의 모순과 경제성장의 그림자 속에서 자연과 놀이와 아이디어를 잃어버린 채 몸·마음·영혼이 찌든 아이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살림교육의 방향으로 (김은주, 2003)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 2. 살림의 개념적 요소

김은주·임재택(2003)은 함석헌·장일순·김지하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등장한 생태담론, 즉 한국의 상고사상이나 동학사상 등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에서 생명사상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과 그로 인한 사회운동적 실천양상이 살림 교육의 사상적 밑거름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살림 교육의 근저에는 '생명'의 원리에 맞춰 세상을 바꿔나가자는 생명문화운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생명문화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개념인 '생명'과 그 실천으로 드러나는 '모심'과 '기름'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림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살림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생명이다. 이는 함석헌, 장일순, 김지하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생명문화운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함석헌(2001)이 내세운 씨울 사상은 생명사상의 또 다른 표현이다. '씨'는 모든 새로운 생명의 출발과 영원한 순환운동을 내포하고 있으며 올의 '르'은 활동하는 생명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장일순(1997)은 동학의 해월 선생의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三敬)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우주만물이 '하늘님'이라는 우주생명을 모신 존재로 모든 생명의 근원적 평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지만,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생명은 실체가 아닌 생성이요, 보일 듯 안 보이고 들릴 듯 안 들리고 모양이 있는 듯 모양이 없는, '드러난 질서'이자 '숨겨진 질서'이다(김지하, 2003a, 2003b). 다시 말해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생명은 '막힘없이 피어나는 우주의 꽃으로 연결과 협동으로 유지되고 확장되는 기운'이다(윤노빈, 2003). 따라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목숨의 살아있음만이 아닌 진정으로 자체의 생성과 상호 생성을 포괄하는 살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김지하(2003a, 2003b)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미적 판단에 도달해야만,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해야만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 언론, 과학 등 각 분야가 온전한 방법으로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살림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 중의 하나가 모심이다. 모든 것, 다시 말해 모든 사물과 인간 또는 욕망까지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모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일

순(1997)은 “자기가 타고난 성품대로 물가에 피는 꽃이면 물가에 피는 꽃대로, 돌이 놓여 있을 자리면 돌이 놓여 있을 만큼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가면 모시는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모든 생명과 함께 날마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 모심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장일순을 비롯하여 함석헌, 김지하 등 많은 생명운동가들은 모심의 개념을 말한다(박순금, 2003; 박영신, 2003, 박영신·김은주; 2004). ‘시(侍)’, 즉 모심이란 동학사상의 ‘시천주(侍天主)’의 핵심으로 천주 즉, 한울님을 모신다는 뜻이다. 안으로 신령함을 모시고, 밖으로 기운의 변화를 모신다는 것은, 풀이하면 인간과 동식물과 무기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한울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모두가 서로 모셔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모든 것을 모셔야 함을 자각했을 때, 누구를 섬기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떠받드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모심이야말로 천지만물의 생존비밀이며, 모든 생명은 모심으로써 살아있고, 모심으로써 생존한다. 그러므로 김지하(2005)는 모심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운동·환경 운동·교육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기름은 모심과 아울러 살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씨앗의 생명이 씨앗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 안에도 그 생명의 씨앗이 있다. 씨앗을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길러야 한다. 생명의 씨앗을 기를 줄 알아야 생명을 바로 모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모심과 살림 연구소 편, 2004).

동학에서 ‘시(侍)’가 모심을 설명한다면, ‘주(主)’는 기름의 미학을 보여준다. 수운 최제우는 이 ‘주’를 ‘칭기존(稱其尊)’ 즉 ‘남’이라고 불렀다. ‘남’은 기름을 의미하는데, ‘기리다, 그림다, 기른다,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생성시킨다, 크게 한다, 기억한다’는 것이 기름이다. 그러니 사람도 남이 될 수 있고, 물건도 남이 될 수 있다. 기른 것은 모두 ‘남’이라고 볼 수 있다. 남 밑에는 ‘한’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다. 우리 민족이 말하는 남 밑에 깔려 있는 ‘한’이라는 정서가 자꾸 우러나오는 그리움이다. ‘한’은 ‘남(各·個)’이자, ‘온(全)’이다. ‘한’은 개체성을 잃지 않는 융합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이다(김지하, 2002).

생명 안에 있는 한울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향하듯이 존중하고 교육하는 것이 살림의 교육이다. 미적 교육이 미적 대상, 예술품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자연 교육이 자연과의 교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살림의 교육 역시 교육 대상에 모심과 기름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살림이라는 개념 속에는 생명을 그 ‘숨겨진 질서’ 대로 ‘모심’, 그리고 그 개성적 ‘결’대로 ‘기름’, 나아가 그 생명을 활짝 꽃피워 실현함이 담겨져 있다.

### 3. 살림의 주요특성

김지하(2001)는 멀게는 신라의 사상이 최치원으로부터, 가깝게는 최제우의 동학사상에서 생명사상의 원류를 이끌어내고 있다(박영신·김은주, 2004). 그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접'은 관계성, '화'는 순환성, '군'은 다양성, '생'은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동학의 '내유신령(內有神靈)'에는 영성이, '외유기화(外有氣化)'에는 관계성과 순환성이, '각지불이(各知不移)'에는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풍류사상과 동학사상에 생명의 4대 특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생명의 네 가지 특성인 관계성·순환성·다양성·영성으로 살림의 주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관계성은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말한다.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세계를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원자론적이고 요소론적인 사고방식이 인성과파·환경의 위기·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이문, 1998).

불가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緣起) 법칙(도법, 2002) 역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 되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살림의 운동에서 생태환경 문제나 인간의 문제, 교육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자연환경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순환성은 우리 삶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생명세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물질의 순환 때문이다.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물은 육지에서 바다로, 또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다시 육지로 순환한다. 이 순환의 과정이 막히거나 어느 한 곳에 독점되어 정지해 버린다면 지구의 생명은 절멸해 버릴 것이므로 생명살림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순환성을 말할 수 있다. 지구에는 물의 순환 이외에도 탄소, 인, 유황 그리고 무기염류 등 다양한 물질이 순환한다. 이런 물질의 순환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공간적 물질 순환과 마찬가지로 탄생, 성장,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이라는 생명의 시간적 순환과정도 생명세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모심과 살림 연구소 편, 2004). 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생명운동이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에너지의 남용을 극복하고 지역산업, 지역농업, 지역 내 유통 등을 지향하는 이유도 이런 물질 순환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다.

셋째, 다양성은 생명세계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다. 암세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종만의 무한 증식은 생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모심과 살림

연구소 편, 2004).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타고나 각자의 존재양식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물과 우주 생명 전체가 따로 따로 떨어져 독립(各立)하되 결코 떨어져 독립할 수 없는 개연적이고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차원을 가지고 더불어 생성하고 진화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생물종들의 공생, 이것이 아름다운 생명세계를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살림의 또 하나의 특성이다.

넷째, 영성은 모든 물질, 모든 생명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영성은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창조력의 근원이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창조력을 가진 우주적 생명의 능력을 말한다(모심과 살림 연구소 편, 2004). 동학의 해월 최시형도 만물 가운데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였다. 한결음 더 나아가 모든 욕망이나 추한 의식, 욕구, 망상까지도 한울님을 모신다고 하였다. 여기서 한울님을 영성으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만물은 개개의 독자적이고 독특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성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대사상을 담은 『천부경』의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人中天地一)’는 말도 영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성’의 독주에 대한 비판으로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생태적 세계관에서는 영성을 강조한다. 생태론에서는 영성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자연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하나는 전체 사회에 대한 인식 속에서 개체들의 위상을 보는 전일적 사고능력을 말한다. 생명사상에서는 개인 내면의 영성과 우주 내의 심층적 활동의 근원으로서의 영성을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

살림의 주요특성으로 생명의 원리인 관계성, 순환성, 다양성, 영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영성을 다양성 안에 포함시켜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하기도 한다. 영성은 다양성 외에도 관계성, 순환성에도 다 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이 네 가지 특성은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연관성 속에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 IV. 유아교육에서의 돌봄과 살림

앞서 살펴본 바대로 돌봄이란, 자신 속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느끼고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고, 살림이란, 생명을 모시고 기르는 마음으로 서로의 생명성을 살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봄과 살림의 의미가 유아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육방법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기본방향으로서의 적용

돌봄과 살림의 의미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육대상으로서의 아동보다는 진정한 연민과 사랑, 돌봄과 살림을 받아야 할 주체로서의 아동에 주목하게 하고, 물질보다는 마음을 강조하고 머리로 하는 교육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교육, 개인보다는 개인들 간의 관계, 혼자 하는 교육보다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적용가능한 논의는, 진정한 돌봄과 살림을 받아야 할 주체로서의 아동,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서의 아동에 있다. 유아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유아의 지적 성장보다는 몸과 마음, 영혼의 행복에 있다. 이는 돌봄의 윤리학에서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을 윤리적 이상의 고양에 두고(Noddings, 1884), 학교교육이 지적 성장보다는 도덕적 성숙을 우선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Noddings, 1994), 살림의 담론에서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일체 만물을 섬기고 모심으로써(장일순, 1997) 온우주 생명을 살리는 측면에서 유아교육 또한 이성 교육보다는 몸성, 영성, 감성교육의 조화를 주장하는(임재택, 2002)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돌봄이란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유아가 제대로 잘 성장하려면 주위 사람들의 관심, 연민, 사랑, 협력 등의 돌봄의 가치가 요구된다. 또한 아이가 본래 가진 생명성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살려주는 살림의 가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장시간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밖으로 나가자는 산책 및 나들이 활동 등 자연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유기농산물 먹이기 운동이나 생태건축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공간구성을 새롭게 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제순, 2005; 김은주·권미량, 2005; 임재택, 2005). 이와 같이 급격한 현대문명의 발달 속에 피폐해진 교육이 제도습을 찾으려면 '생명의, 생명에 의한, 생명을 위한' 생명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유아교육에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진정한 돌봄이자 살림일 것이다.

두 번째로 적용가능한 논의는, 유아교육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배움은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함석헌, 2001). 이은정(1999)은 교육의 모든 현상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권과 비 제도권 교육의 구분을 초월하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자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가 경험하는 돌봄과 살림의 의미와 가치를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돌봄 교육에서는 실천을 강조하고, 살림 교육에서도 자연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체험 활동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돌봄 교육에서는 봉사활동이 돌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돌봄의 감정과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고, 돌봄의 형식이 아니라 돌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수동, 2005). 또한 살림 교육에서는 생명 살림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텃밭활동이나 산책활동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성, 순환성, 생물의 다양성과 영성을 배우게 한다(김은주, 2004). 따라서 삶 교육이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실제 삶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표현한 것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세시풍속으로 연간활동을 진행하고 제철음식을 먹고 자신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끼리를 만들어보는 교육활동을 통해 유아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세 번째로 적용해야 할 개념은 관계교육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관계 교육이란 교육을 통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식물 등의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함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에서(이미식·최용성, 2002; Sapon-Shevin, 2000) 무생물에 이르기까지를(Noddings, 1984) 돌봄과 살림의 대상으로 본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돌봄과 살림의 공통적인 특성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Goldstein(2001) 등의 학자들은 돌봄이 유아교육을 여성만의 직업으로 한정하여 비전문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돌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Noddings(1984)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개인적인 특성이 아닌 모든 상호작용과의 관계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양옥승(2004)은 돌봄으로 유아교육과정을 이해할 때 자신에 대한 돌봄, 친밀한 사람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돌봄, 동식물 및 지구에 대한 돌봄, 인간이 만든 도구와 이념에 대한 돌봄 등을 유아교육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계 교육의 실천내용을 보여주었다. 유아교육의 대안적 모색의 한 예가 되고 있는 공동육아에서도 육아공동체·생활공동체·사람공동체와의 관계맺기를 통해 교육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는 점에서(이부미, 2001) 관계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의 착취와 환경의 파괴는 인간 자신이 살고 있는 땅과 그 땅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의 분리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관계망의 붕괴는 인간 자신이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있는 삶을 와해시켜 버렸다(이천일, 2002). 따라서 돌봄과 살림의 교육에서는 타 존재와의 교류, 타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생적이고 다차원적인 관계를 맺어나감으로써 지역사회, 자연, 나아가 우주로 확대되는 돌봄과 살림의 세계관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기에 자연 속에서 사람 사는 속에서 감각을 일깨우고 마음껏 뛰놀거나 움직이는 일은 관계를 배워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므로 이를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돌봄과 살림의 논의 중 네 번째로 적용할 부분은, 공동체 교육에 관한 것이다. 함석헌과 장일순의 생명살림운동의 근본에 있는 공동체정신은(박순금, 2003; 박영신, 2003)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육계에 일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 중의 하나인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교육으로 이어진다. 돌봄 교육에서는 도덕성을 개인적 의무감이나 결단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개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의존적인 개인들 간의 특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돌봄의 윤리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 간의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관심과 배려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인 만큼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는 공동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살림 교육에서 역시 농업 고유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농촌 특유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살리는 일이 합쳐져서(김조년, 1998)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꾀하고자 한다. 최근 일고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지 방문 프로그램이나 시골 체험 프로그램 등은 이미 산업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농촌사회의 붕괴와 도시의 환경문제를 교육이라는 모티브 속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개인주의적 교육 현상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옛 농촌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것은 교육에 반영하여 농촌사회의 공동체적 아이디어를 연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모회를 조직하여 프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평가, 원의 재정운영, 나아가 자원봉사나 일일교사 또는 각종 행사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동참시키거나(김성원, 2003), 두레나 품앗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함께 키우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2. 교육적 실천방안 모색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돌봄과 살림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돌봄과 살림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인식하고, 실천적이고 관계지향적이며 공동체적인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의 내용으로 자연성, 지역성, 실천성을 반영한다. 돌봄과 살림의 주체로서 아동을 인식한다는 것은 아동을 자연스럽게 키운다는 것이다. 자연(自然)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아이를 자연스럽게 키운다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도록 키운다는 뜻이 되며, 아동의 가장 스스로 그러한 상태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살림 교육에서는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생태지향적인 대안학교인 '변산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윤구병(2002)에 따르면, 문명화한 도시에서는 생명의 시간, 다시 말해서 '철'을 찾아보기 힘들며,

현대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육은 철에 맞는 교육, 즉 생명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요즘 아이들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자식으로 자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래 아이들은 생명의 시간 속에서 자연의 자식으로 자라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대안학교인 '풀무학교'의 주 교육내용이 농업인 것과 생태교육을 유아교육에 적용한 생태유아교육에서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를 강조하고, 몸성·영성·감성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도 자연을 교육의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자연을 교육의 내용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자칫 자연이 없으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지역성이라는 개념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림의 특성으로 살펴본 순환성의 개념에서 생명살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순환, 의식의 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조년(1998)은 엄밀히 따지면 "지역사회가 학교요, 학교가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았다. 지역의 교육력을 활용하고, 학교를 움직이는 원리가 지역사회를 움직일 때 지역과 학교는 힘이 실린다. 지역과 학교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원리, 그것은 Illich가 말한 상호친화적 사회, 곧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지역의 자치와 생명과 협동적 공동체에 공감하고 그 실현에 협력하는 것이다(홍순명, 1993, 1996). 따라서 학교가 놓여 있는 지역이 어떠한 문화와 역사와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꾸리고 살며,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학교 안에 또 다른 사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주변 사회를 그대로 교재로 활용하여 학교와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현장교육이며,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돌봄 교육에서도 역시 이러한 현장성, 실천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대화하거나 글을 써보는 것으로 돌봄의 능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실천해 봄으로써 돌봄의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Noddings, 1992). 따라서 Noddings는 돌봄의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서 학교에서 정규과목 외에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봉사활동은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나누고 베푸는 가치를 체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대상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야 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교육의 방법으로 상호성과 공공성을 반영한다. Noddings는 돌봄 교육에서 대화(dialogue)를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를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돌봄을 지속할 수 있고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돌봄 교육에서 방법적 원리로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교육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



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토의할 때 교육은 서로의 살림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성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벗어나서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긴밀한 공공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장일순(1997)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주 질서에 자신도 참여한 것이 되고, 이러한 여럿이 힘을 모아서, 혼자 잘 살지 말고 손잡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윤구병(2002)은 아이가 스스로 살아남고 더불어 살아남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의 몫이지만, 개체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과 공생의 능력을 기르는 것 중에서 공생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람은 아무리 제 스스로 앞가림을 하려고 해도 주위의 사람이 없으면, 더불어 함께 있는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이 없다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강수돌(2004) 역시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학교와 교육은 우선 삶의 자율성을 기르고 자아발견을 돕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른 존재를 보살피고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우주 만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순환체계이며 공존공생하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공동체임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임재택, 2002).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내에서도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Sergiovani, 2004). 즉 아이와 교사,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유아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역할로 정성을 강조한다. 안경식(2005)은 자식에 대한 간절한 기원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 기운이 다시 아동의 마음에 전해져서 바른 교육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살림교육에서는 물질보다는 마음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정성을 강조한다. 이때의 정성은 아동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에 대한 기쁨이자 모심일 것이다. 그러나 '모심'은 곧 '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심'은 밀착이 아니라 거리를 유지하고 보살피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집중하여 그것을 그 본래의 성정과 유출 경향대로 살려내면서 변화시키는 일종의 '섬김'의 태도이다. 두고 높여 섬기는 친구지간을 뜻하는 동사(同事)는 '업힘'이다. '업힘'은 상호 소멸적인 '들러붙음'이나 통합의 의미가 아니다. 동사는 거리를 둔 사랑, 즉 부부지간, 부부지간, 친구지간, 나아가서 물질이나 동식물까지도 확대되는 섬김이다(박영신·김은주, 2004). 따라서 정성을 다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준다. 다시 말해서 말로 돈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정성은 아이에게 본보기(modeling)가 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Noddings(1988)에 따르면 돌봄을 받는 사람은 돌봄의 동기를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서 찾아낸다. 따라서 돌봐주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존중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접근해야 하며, 모든 행동과 상호작용의 관

계에서 모범이 될 만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의 능력은 자신들이 돌봄을 받았던 경험과 돌봄을 베풀었던 경험에 의존하므로, 교사는 아동들과 함께 하는 모든 관계에서 언행을 통해서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합리적이며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아동에게 확신(confirmation)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확신한다는 것은, 그의 현재모습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Noddings, 1984). 곧 확신이란 교사가 아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기초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보다 훌륭한 자아를 확인하고 이의 발달을 격려해줌으로써 최상의 자아를 고양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Noddings, 1992). 따라서 무엇보다도 아동과 교사간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 요구된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협동적 실천을 해 나가는 가운데 교사는 아동을 인격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순히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은 확신이 아니다. 교사들은 윤리적 이상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적인 삶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수동, 2002a). 따라서 유아교사는 아동을 정성을 다해 대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돌봄과 살림을 실천하는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IV. 맺는 글

고제순(2005)은 교육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겉으로는 교육의 목표를 인성과 창의성 개발에 두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인성과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이 시대를 무한경쟁의 시대로 규정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 현장이 긴장되고 무미건조해지고 있다. 아이들도 긴장하고 교사들도 긴장하고 부모들도 긴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의 경쟁의 논리가 교육내용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를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죽음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교육이 생명을 진정으로 돌보고 살리는 교육인지 생명을 죽이는 교육인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지금껏 우리의 교육은 생명의 본질, 이치, 원리, 질서에 대한 총체적·통일적 인식이 결여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껏해야 자본주의 이념이 결합된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편협한 교육이었다. 그로 인해 생명의 관계를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경쟁의 논리로만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규정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이 진리인 것처럼 인간중심적인 생명관을 가르쳐 왔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심각한 교육의 오류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생명세계는 대 혼란이 야기되었고 생명의 본질은 왜곡되었고 생명의 질서는 파괴되었으며 생명의 조화는 깨졌고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의 평화는 금이 갔으며, 결국 인간이란 한 생명체에 의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공멸의 벼랑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교육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공멸의 벼랑에서 벗어나서 공생의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관계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돌봄의 윤리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타성의 도덕적 책무가 잊혀져가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나현, 1998). 또한 생명의 원리인 관계성, 순환성, 다양성, 영성을 강조하는 살림의 논리 역시 진정으로 아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듯 앞으로의 교육은 타인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주변세계를 개선시켜나가는 방향,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생명에 관한 총체적이고도 본질적인 돌봄과 살림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돌봄 교육과 살림 교육의 교육적 의미가 새롭게 조망되어야 하고 그 실천적 모색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과 살림의 유아교육적 적용으로 생명 교육·삶 교육·관계 교육·공동체 교육을 제안하면서, 교육대상으로서의 아동보다는 진정한 연민과 사랑, 돌봄과 살림을 받아야 주체로서의 아동, 물질보다는 마음을 강조하고 머리로 하는 교육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교육, 개인보다는 개인들 간의 관계, 혼자 하는 교육보다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돌봄과 살림의 담론을 유아교육의 현장에 일반화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돌봄과 살림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의 방향 제시에 연구의 초점이 집중되어 왔다.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숙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 담론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돌봄과 살림의 개념적 요소나 주요 특성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실천 가능한 모델의 개발이나 실천 사례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구성원들(원장, 교사,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의 돌봄과 살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 그들 간의 돌봄과 살림의 실천 양상 등을 연구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수돌 (2004). 생명의 경제를 위한 '살림의 경제학' 시론. 세계생명문화포럼-경기2004자료집, 한국의 생명담론과 실천운동. 11.12-11.14,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사)생명과 평화의 길&경기문화재단.
- 고제순 (2005). 생태적 삶과 생명의 살림집. 생태건축으로 여는 아이들의 삶터-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월 18일, 부산대학교,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 김성수 (2001). 함석헌 평전. 서울: 삼인.
- 김성원 (2003). 생태유아교육과 Steiner 유아교육의 비교 연구. 교육학논총, 24(2), 85-106.
- 김수동 (2002a). 배려의 교육적 개념- Noddings의 도덕교육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22, 25-42.
- \_\_\_\_\_ (2002b). Noddings의 도덕교육론에 나타난 배려의 요소와 그 실천양식. 교육철학, 21, 33-55.
- \_\_\_\_\_ (2005). 배려의 교육. 서울: 장서원.
- 김애자·김정혜 (2003). 유아를 위한 먹거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1), 147-166.
- 김은주 (2003). 생태유아교육의 사상체계 및 실천원리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_\_\_\_\_ (2004). 생태유아교육의 교육원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67-186.
- \_\_\_\_\_·권미량 (2005). 공동육아와 생태유아교육의 교육체계 및 운영원리. 유아교육논총, 14(1), 35-64.
- \_\_\_\_\_·임재택 (2003). 생태유아교육의 형성배경 및 개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37-158.
- 김조년 (1998).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 풀무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김지하 (2001). 집화군생: 인문학과 생태학. 인문학과 생태학. 서울: 백의. 23-60.
- \_\_\_\_\_ (2002). 모심과 살림의 미학. 모심과 살림 총서1- 모심 侍. 서울: 모심과 살림 연구소. 20-54.
- \_\_\_\_\_ (2003a). 생명학 1. 서울: 화남.
- \_\_\_\_\_ (2003b). 생명학 2. 서울: 화남.
- \_\_\_\_\_ (2005). 생명과 평화의 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도 법 (2002). 상생의 세계관과 생명운동, 밥과 명상. 서울: 모심과 살림 연구소.
- 모심과 살림 연구소 편 (2004). 모심과 살림 총서 4: 살림의 말들. 서울: 모심과 살림 연구소.
- 박병춘 (1999). 보살핌 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석준 (2003). 병든 지구·아픈 아이, 그 돌봄과 살림. 유아교육, 근본으로 돌아가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월 6일, pp. 37-51.
- 박순금 (2003). 장일순 생명사상의 생태유아교육적 함의.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박영신 (2003). 함석헌 씨울사상의 생태유아교육적 함의.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_\_\_\_\_. 김은주 (2004). 김지하 생명사상의 생태유아교육적 함의. 생태유아교육연구, 3(1), 21-42.
- 박이문 (1998). 문명의 전환과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 당대.
- 심정보 (1996). 보살핌의 윤리와 도덕교육론. 초등교육연구, 9, 1-26.
- \_\_\_\_\_. (1998). 보살핌의 윤리와 통합적 인간발달의 새로운 지평. 홀리스틱교육실천연구, 2(1), 55-74.
- 안경식 (2005). 한국전통아동교육사상. 서울 : 학지사.
- 양옥승 (2004). 보살핌의 텍스트로서의 유아교육과정 이해. 유아교육연구, 24(4), 247-262.
- 윤구병 (2002). 스스로 살아남기, 더불어 살아남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 pp.14-30. 6월 8일 부산: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 윤노빈 (2003). 신생철학. 서울 : 학민사.
- 이나현 (1998). 배려의 윤리와 도덕판단의 지향성. 교육심리연구, 12(2), 151-178.
- 이미식·최용성 (2002). 도덕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배려의 윤리.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 이부미 (2001).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이은정 (1999). 교육생태학의 성립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천일 (2002). 생태주의 관점에 따른 교육과정의 의미 탐색.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임재택 (2002). 아이들의 삶과 생태유아교육.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12.7, 부산대학교 본과 대회의실,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 \_\_\_\_\_. (2005). 생태유아공동체에 관하여. 생태유아교육선집 1. 서울 : 양서원, 517-525.
- 장일순 (1997).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대구 : 녹색평론사.
- 장택희 (2000). 살림의 논리. 대구 : 녹색평론사.
- 정유성 (1997).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정운경 (2000).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한국교육, 27(1), 1-29.
- 추병완 (1998). 길리건의 도덕발달이론에 대한 재조명. 도덕윤리와 교육, 9, 399-416.
- 함석헌 (2001). 끝나지 않은 강연(함석헌 미간행 강연 유고집). 서울 : 삼인.
- 홍순명 (1993). 학교공동체의 진진, 개교 35주년을 맞아. 풀무, 126, 6.
- \_\_\_\_\_. (1996). 더불어 사는 평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교육목표. 풀무, 138, 7-6.
- Gilligan, C. (1994).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발달.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허란주 역). 서울 : 동녘. (원전은 1982년에 출판).
- Goldstein, L. S. (2001). 사랑으로 가르치기: 유아교육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Teaching*

- with love: A feminist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 (염지숙 역). 서울 : 창지사.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Y: Teachers College Press.
- \_\_\_\_\_ (1994). An ethic of caring and its implication for instructional arrangement. Stone L. (ed), *The Education Feminism Reader*. NY: Routledge.
- \_\_\_\_\_ (1995). Care & moral education. Kohli W. (ed). *Critical Conversations in Philosophy of Education*. NY: Routledge.
- \_\_\_\_\_ (2002). *Educating moral people-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NY: Teachers College Press.
- Sapon-Shevin, M. (2000).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그 대화의 시작. [*Reconceptualizing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Beginning the dialogue*] . (신옥순, 염지숙 역). 서울 : 창지사.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Sergiovani, T. J. (2004). 학교공동체만들기.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 (주철안 역). 서울 : 에듀케어. (원전은 1994년에 출판).

\* 논문접수 2005년 8월 15일 / 1차 심사 2005년 8월 29일 / 2차 심사 2005년 9월 7일

\*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동 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밟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선생님들이 직접 쓴 산책 프로그램: 애들이 산책가자", "선생님들이 직접 쓴 절제·절약 프로그램-우리가 아껴쓰고 나눠 쓸래요", "새내기 유아교사를 위한 매너와 상식-나도 멋진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등이 있다.

\* e-mail: keyof21@hanmail.net

\* 이상수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수업설계", "원격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 교육학" 등이 있다.

\* e-mail:soolee@pusan.ac.kr

Abstract

## 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Discourse of 'Caring' and 'Living'

Kim, Eun Ju\* · Lee, Sang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a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hich is not to teach but to care and preserve value of 'Caring' and 'Living' as a new educational discourse.

The reason that we are going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Caring' and 'Living' is as follows; As social demand and interest ab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increased, it came to cling to early education and special skills education and exhausted our children's lives to barren desert.

Thus in this study, we first looked into the conceptual element, the main characteristics, the educational method of 'caring' education and appearance of 'caring' education concentrating on the ethics of 'caring' by Noddings.

Second, we looked into the conceptual element, the main characteristics, the educational method and appearance of living education based on discourse of 'living' and the life culture movement of Ham, Seok-Heon, Jang, Il-Sun, Kim, Ji-Ha.

And lastly, we made a research on how it was being practiced and applied to education of caring and liv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whether it is applicable in the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suggestion in finding the direction of early

---

\*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Post-doc

\*\* Department of Educa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education childhood by considering the meaning and the practiced examples of caring education and living education.

Key words: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ing, living, caring education, living education.